

# ‘가족의 간병·돌봄 지원’

## 질병, 부상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병원비, 간병비 부담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대구광역시시는 가족을 간병하고 돌보는 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긴급돌봄과 일상돌봄 제도를 시행하고 민간후원을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그동안 가족 중 누군가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 또는 장기간 간병과 돌봄이 필요할 경우, 비용 부담을 안고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할 수 없이 생업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구는 이러한 가족의 간병·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갑자기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30일 내 최대 72시간까지 돌봄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행해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돌봄 및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1522-036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간호·간

병 통합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가족 중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병원에서 간병을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퇴원 후 긴급돌봄 또는 일상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가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적용된다.

또한 대구시는 가족의 간병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밀알복지재단과 연계하여 병원 입원 중 발생하는 간병

비를 지원하고 있다.

간병비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대 300만 원, 밀알복지재단은 최대 500만 원까지 의료비를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 달성군, 폭풍 찌는 찜통더위 ‘양심양산 대여사업’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9월 말까지 양심양산 대여 사업을 운영한다. 매년 여름철 폭염 예방 차원에서 달성군청 2층 종합민원실 입구, 버스정류장 달성군청앞·달성군청간너 총 3곳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대여소에 비치된 양산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반납할 수 있다. 사용한 양심양산은 대여 장소에 반납하면 되며, 군에서는 반납받은 양산을 소독티슈, 스프레이 등을 활용하여 소독한 후 다시 대여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자료제공:달성군청>

## 건강칼럼



보생조한의원 원장 조현정



### 시원하게 마시는 여름철보약, 생맥산(生脈散)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한 8월, 본원을 방문하는 환자분들의 얼굴과 몸에도 땀이 가득하다. 날이 더워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땀을 낸다. 하지만 정상적인 발한(發汗) 기능이 작동하더라도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나 지나치게 땀이 나는 사람들은 땀이 난 뒤 기력이 떨어지거나 어지럽고, 입맛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주하병(注夏病)이라고 한다.

이런 주하병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처방이 생맥산(生脈散)이다.

맥(脈)을 살린다는 뜻을 가진 생맥산은 여름철 보약으로 불리는데, 인삼, 맥문동, 오미자 3가지 약재로 구성된다. 땀을 과하게 흘리고 난 뒤 발생하는 피로, 갈증, 호흡곤란, 가슴답답함 등의 증상을 치료하며, 조선시대 왕들은 여름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차처럼 복용했다고도 한다.

생맥산을 구성하는 약재 중 인삼은 기력을 회복하고 비위기능을 도와주며, 맥문동은 진액을 보충하고 심열(心熱)을 내려준다. 오미자는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진액을 막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 생맥산은 꼭 여름철이 아니라도 주방이나, 철강산업, 농업처럼 땀을 많이 흘리는 환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여름철 보약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여름철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날이 더워지면 몸속의 열(熱)은 체표로 몰리게 되고, 속은 냉(冷)해진다. 덥기 때문에 차갑고 시원한 음식 섭취가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속은 더욱 차게 되어 소화불량, 설사 등 소화기질환도 많아진다. 지나치게 차가운 식음료의 섭취를 삼가고 따뜻한 성질의 식음료를 섭취한다.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고 햇볕이 강한 시간대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다. 운동 중 어지러움, 메스꺼움을 느낀다면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07 / 보생조한의원 ☎053-564-0401



### 대구의료원, 대구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대구의료원(원장 김시오)은 대구대학교(총장 박순진)와 우수 보건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시오 대구의료원장, 박순진 대구대학교 총장 및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자료제공:대구의료원>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 교통안전 캠페인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서부사업소는 지난 8일(목)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과 응급상황 발생 시 직원들의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심폐소생술(CPR) 등 실질적인 응급처치 방법과 대처 요령을 교육하고 실시했다.

<자료제공: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